
제48호 방송심의보고서

2019.11.22.~11.28.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국민리포트		
방송일자	2019. 11. 22.	시청률	0.025

【총 평】

이번 방송에서는 첫 눈이 내린다는 ‘소설’ 절기에 대한 시의성에 맞게 ‘사랑의 연탄나눔’ ‘사랑의 김장 담그기’ 등 월동준비와 연말 이웃돕기 콘셉트를 살린 기획이 탁월했다. 특히 ‘어린이집 연장보육 실시’에 대해 알아본 ‘정책인터뷰’는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핵심을 잘 담아냈다.

‘추위 녹여주는 온정, 사랑의 연탄 나눠요’, ‘사랑 가득 김장 참여한 결혼 이민 여성’, “아세안 음식 맛보세요”, 유명 셰프 등장 등 의식주와 밀착된 내용들이 많아, 더욱 생활과 맞닿았고 생생했다. ‘연탄과 온정’, ‘김장과 봉사’가 결합된 아이тем들이 날씨와 어울리는 소재로 밀착되게 시청할 수 있었고, 훈훈한 나눔의 메시지들이 많아 온기를 더했다.

【구성 및 내용】

이번 방송에서는 절기, 초겨울, 금요일 등 시의성을 살린 연성 리포트가 흡인력을 높였다. 결혼 이민 여성들의 사랑의 김장 담그기 체험이라는 이색적인 소재도 관심을 유발했다. 이와 함께 겨울나기 리포트, 글로벌 리포트, 문화가 산책, 정책 인터뷰 등 다양한 구성이 흡인력을 높였고 글로벌 리포트, 문화가 산책, 정책 인터뷰 등도 다양성과 정보면에서 시청자 만족도를 높이는 요소였다.

이와함께 리포트와 정책인터뷰를 통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어린이집 연장보육 실시 등 정책알림이 역할을 자연스럽게 수행한 점도 눈길을 끌었다. 부산 아시안 거리 음식점에서의 볼거리, 먹거리를 소개하면서 자연스럽게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알리는 홍보 효과를 거뒀다.

또, 호주 멜버른에 해외 10번째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됐다는 소식과 프랑크푸르트 한국 영화제에서 ‘기생충’ 등 한국영화 15편이 상영됐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그 의미와 한류 확산 움직임을 현지 인터뷰를 통해 부각한 점도 높이 평가된다.

서천 철새여행, 최남단 방어축제, 파주 장단콩 축제 등 겨울손님과 함께한 <문화가 산책> 내용도 겨울과 수확을 느끼게 했다. 주부, 청소년, 해외리포터가 고루 등장해 국민기자 리포트 구성도 다양했다.

【참고사항】

■ 해외 10번째 '평화의 소녀상'...호주 멜버른에 건립'

12:18 → 기자 리포트의 “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를 열고 영화상영회를 통해”에서 영화관으로 넘어가는 화면에서 암전상태가 다소 길었는데 짧게 편집해야 좋았을 것 같다.

13:01 → 서철모 화성시장 인터뷰에서 “새로운 미래로 나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에서 ‘나가기’는 ‘나아가기’로 쓰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프로그램	사운드멘터리 풍경 소리		
방송일자	2019. 11. 23.	시청률	0.229

【총 평】

<사운드멘터리 풍경소리> 제13회는 햇살이 쉬어가고 구름과 노을빛의 한숨까지도 품어 낸다는 '남도 갯마을 기행'편이다.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대포리의 소금마을 소리,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가막만 지역의 굴 캐는 소리,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이목리 여자만 지역의 게 풍년 소리와 소 모는 초로의 노인 소리 등 겨울을 부르는 자연의 소리를 담았다.

어촌 지역의 바다 소리가 주는 감동과 염전에서 들려주는 소리의 감동 차이가 있어 아주 인상 깊었고, 염전뿐만 아니라 굴 양식장, 그물 작업 현장, 소를 이용한 밭 갈기 작업 등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일깨워주는 느낌이었다.

【구성 및 내용】

전남 여수시의 염전, 가막만의 굴 작업, 여자만의 마을을 대상으로 염전에서는 소금밭 밟는 소리와 함께 소금이 만들어내는 소리를 담았고 굴 작업장에서는 굴을 수확하고 두드리는 소리, 여자만에서는 소와 사람의 소통소리를 담아주었다. 염전 바닥을 밟으며 물이 찰랑거리는 소리, 창고 소금산의 소금이 흐르는 소리, 그리고 가막만 굴 작업장에서는 굴을 수확하며 자기네들끼리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빈 굴을 찾기 위해 굴껍데기를 두드리는 소리, 여자만에서는 이제 막 밭일을 배우기 시작한 소와 어르신의 소통하는 소리들이 적절한 내레이션과 함께 전달되었다.

■ 염전 작업

소금을 만들어내는 소리부터 중간에 가을 전어를 소금에 구워 새참을 먹는 소리까지 놓치지 않고 담아내면서 염전만의 독특한 정취를 잘 살려냈다.

■ 굴 양식 작업

바다에서 굴을 채취해서 어촌 아낙네들이 하나 하나 그것을 까는 소리를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라고 표현하면서 운치 있게 담아냈고 굴을 이용해서 만든 떡국이 익어가는 소리까지 섬세하게 잘 살려냈다.

■ 그물 작업

바다에서 그물 작업하는 장면도 잠시 등장했는데 분량이 적어서 그런지 별로 존재감은 없었고 딱히 기억에 남는 소리도 없었다.

■ 밭 갈기 작업

소를 이용한 옛날 방식으로 밭을 가는 장면도 마지막에 배치시켰는데 그 장면 자체가 굉장히 보기 힘든 장면이라 흥미로웠고 소를 모는 소리와 소의 목에 달린 방울 소리가 주는 여운이 꽤 참신했다.

프로그램	우리동네 개선문		
방송일자	2019. 11. 23.	시청률	0.113

【총 평】

<우리동네 개선문> 제8회에서는 은행나무 가로수 악취를 아이디어로 해결한 사례와 대형물류단지 환경분쟁을 주민과 관련기관의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은 사례가 각각 소개됐다. 가을철이면 냄새 공해가 나타나는 은행나무 가로수 문제와 인근 시설의 환경공해로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사례는 공통 현안이어서 소재의 적절성과 흡인력이 돋보였다.

대전 서구청 은행 악취 민원 아이디어 해결, 충북 영동 특산품과 가로수 연계 행정, 대형물류단지 환경 분쟁...가로수로 보완 등 오늘 민원 및 해결 내용이 '가로수'를 공통점으로 포함하고 있었다. 조금씩 행정성격이 다르지만 그 안에 공통소재가 있으니, 전반적으로 안정된 구조가 됐고, '확실한 집중'도 가능했다.

【구성 및 내용】

<우리동네 개선문>은 주민들의 문제제기와 해당기관의 협조로 솔루션을 찾는 과정이다. 이처럼 생활 속 주민의 불편사항을 관련기관의 조정으로 해결해나가는 순기능을 보여주는 기획이 행정에 대한 신뢰성과 정책홍보 역할을 제고시킨다.

가을철이면 전국 주민들이 공통으로 느끼는 고충은 악취를 풍기는 은행나무 가로수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다룬 기획이 공감도를 높였다.

또, 환경분쟁을 주민들과 관련기관들이 대화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도출한 과정도 상황이 비슷한 다른 지역에 시사점을 제공한 의미있는 구성이었다.

주민의 환경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완충녹지에 방음 옹벽을 설치하고 가로수를 심는 해결방안이 소개되고 이런 솔루션은 주민과 관련기관 간담회를 통한 소통에서 나왔다는 점이 강조됐다.

그러나, 취재기자 멘트, 상대방 발언, 진행자의 질문 내용 등의 선후가 서로 섞이는 부분은 정교한 편집이 필요해 보였다. '대형물류단지 환경분쟁'의 경우 취재기자 멘트와 강정구 평택시 시의원 발언, 김현아 진행자의 멘트가 일부 앞뒤로 중복되거나 정리되지 않은 느낌을 주어 아쉬웠다.

【참고사항】

은행나무 열매의 악취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우리 모두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으므로 수거장치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 누가 아이디어를 냈고 어떤 과정을 거쳐 설치했는지에 대한 내용 구성이 빠져 있어 아쉬웠다. 평택 물류단지 분진과 소음 문제는 피해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체감하기 어려웠고 최소한 소음 문제는 데시벨을 측정한다든지 하는 시도가 있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프로그램	PD리포트 이슈 본(本)		
방송일자	2019. 11. 24.	시청률	0.090

【총 평】

<PD 리포트 이슈 본> 제276회는 '백년가게, 소상공인의 미래를 보다'라는 주제로 대한민국 상생과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의 성공 사례라 할 수 있는 '백년가게'를 다룸으로써 소상공인 혁신 역량 지원정책 및 자영업자들의 건강한 생존기를 엿볼 수 있었다.

특히, 자영업자들이 늘어나면서 노포가 없어진다는 것이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자리잡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국가적인 정책을 함께 다루어주어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

창업과 폐업이 만연한 시대적인 모습을 지적한 뒤 정부가 주관하는 백년가게 정책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등 구성에 있어서는 상당히 완성도가 높은 편이었지만, 외국의 사례도 좀 더 집중적으로 소개가 되면 더 좋았을 것 같다.

【구성 및 내용】

오늘 방송은 백년 가게의 실태와 지원 프로그램 소개로 내용이 나누어져 좀 더 객관적이고 직관적으로 사회 현상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했고, 존폐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미래 대안을 다뤘다.

다양한 업종과 사례를 통해 도소매업이나 음식점 등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을 중심으로 구조적 문제를 다룬 점, 소상공인 창업생존율과 노포 가치, 전통과 신용을 기반으로 한 일본 시니세(노포) 수, 정부가 지원하는 백년가게 조건과 지원 내용 등 '백년가게'를 통한 소상공인들의 경험과 인식전환 모습을 조화롭게 다뤘다.

■ 현존하는 노포 소개

수 십년이 흐르도록 한 가지 업종만을 고수하면서 전통을 잇고 있는 수제화 가게와 커피 전문점을 직접 소개하면서 업주들의 소신과 노하우를 소개했고 현실적인 어려움도 함께 다루었다.

■ 중고 물품 가게

1부와 2부를 연결해주는 역할로 중고 물품 가게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 물품들을 파악하면서 얼마나 빠르게 창업과 폐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회적인 현상을 분석했다.

■ 백년 가게 육성 정책 소개

정부가 주관하는 백년 가게 육성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소개하고 이 프로그램에 선정된 가게들을 둘러보며 어떤 점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지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면서 차후에 계획된 프로그램까지 함께 소개했다.

【참고사항】

노포(老舖)는 일본어로 시니세(しにせ)라 부름, 우리말 표현도 좋을 것 같다.

프로그램	귀농다큐 살어리랏다		
방송일자	2019. 11. 24.	시청률	0.195

【총 평】

은퇴자의 삶의 보람을 오랜만에 느끼게 하는 수작이었다. 16가구가 살고 있는 장적골 농촌 마을에서 귀농 11년차인 70대 부부가 70-80대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름 쓰기, 시 짓기, 그림 그리기를 가르치고 있었다. 소설 '상록수'의 한 장면처럼 감동으로 다가왔다.

교수와 교사를 지낸 차영규, 임인숙 부부의 가르침을 받은 노인 학생들은 눈물의 명예 졸업장을 받고 시화전까지 열어 작품 솜씨를 뽐냈다.

귀농다큐가 대부분 사업에 실패했거나 은퇴자가 농촌으로 돌아와 제2의 사업에 성공하는 스토리였다면 이번 8회에서는 은퇴 후 귀농해 주민들에게 재능기부하며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소재여서 또 다른 감동을 선사하고 은퇴자들에게 시사점을 제공한 점이 긍정적이다.

【구성 및 내용】

이번 방송은 인생이모작의 모범적 사례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였고, 소위 재능기부를 통해 공동체에 기여하는 삶의 가치를 되새겨볼 수 있는 좋은 사례였다.

또, 마을회관에 모여 공부하고 사는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에서 정감을 느낄 수 있어 좋았고, 할머니들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는 가슴에 와 닿았다. 가을소풍에 나선 차영규 화백 부부와 할머니들의 모습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느끼는 정의 깊이 그리고 공감의 크기를 잘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영농으로 성공한 귀농 사례를 떠나 주민과 어울리며 봉사하고 함께 행복을 찾는 소재가 신선하고 메시지 전달력이 높은 기획 이었다. 화가와 시인 출신 전직 교수 남편과 교사 출신 아내가 귀농해 마을 노인들을 대상으로 재능기부하고 봉사하는 삶을 묵묵히 실천하는 모습을 그림으로써 전문직 은퇴자의 노후 성공적 귀촌을 긍정적으로 묘사한 부분이 주목된다.

전문직 은퇴자의 노후 성공적 귀촌의 롤 모델을 제시한 부분도 긍정적이다. 영농으로 성공한 귀농 사례를 떠나 주민과 어울리며 봉사하고 함께 행복을 찾는 소재가 신선하고 메시지 전달력이 높은 기획이었다.

또, 다큐형식으로 평균 연령 77세인 농촌 할머니들을 찾아 이름쓰기, 시 짓기, 그림 그리기 교육을 하는 모습 등 그동안 이뤄낸 결과물 등이 소개돼 흡인력을 높였고 귀농 11년차 부부의 귀농 보람, 동기, 농어촌에서의 소소한 일상, 결혼 반백년을 맞은 70대 부부의 전원생활 만족감이 잔잔하게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인생 후반기 역전드라마로 감동을 준 할머니들의 명예졸업장, 시화전, 가을 소풍 소재도 감동을 주는 요소였고, 70대 교수 출신 남편의 새벽시장에서의 상인들과의 대화, 주민 소통 장면도 '함께 하는 행복' 메시지를 전달하는 영상이었다.

프로그램	국민리포트		
방송일자	2019. 11. 26.	시청률	0.002

【총 평】

<국민리포트> 이번 방송에서 아이템은 뻔한 놀이터는 가라...‘창의 놀이터’로 바꾼다, 마을회관 건립의 꿈...매달 벼룩시장 열어, 천년고도 경주...가을로 물들다, 입과 귀로 통일을 이끈다...베를린 남북 평화의 식탁, 100년 근현대사 속 ‘한국미술’을 보다 등이었다.

오늘은 마을 소식을 담은 전형적인 리포트 두 개와 경치를 묘사한 리포트 하나, <글로벌 리포트>, 그리고 미술관을 소개한 리포트 하나로 구성되어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했다.

국민리포트의 경우 지방에는 없는 서울시만의 시책사업 등이 종종 방송을 타는데 지역적 불균형이 많이 부각되는 주제들은 자제했으면 한다. 또한 구성상 글로벌 리포트는 마지막에 위치하는 편이 좋다고 본다.

【구성 및 내용】

- 뻔한 놀이터는 가라...창의 놀이터로 바꾼다.
서울 인근의 창의 놀이터를 소개하고 기존 놀이터와 다른 점을 강조하고 이러한 놀이터를 조성하기 위한 서울시의 입장과 노력상을 상세히 다루었다.
- 마을회관 건립의 꿈...매달 벼룩시장 열어
공주시 한 마을에서 공동 돌봄을 목적으로 한 마을회관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열린 벼룩시장 현장을 취재했다.
- 천년고도 경주...가을로 물들다
저물어가는 경주의 마지막 가을 풍경을 감성적으로 담아냈다.
- <글로벌 리포트>입과 귀로 통일로 이끈다, 베를린 남북 평화의 식탁
독일 현지에서 화합의 식탁이라는 이름으로 마련된 사찰 음식을 소개하고 청년 독일 컨퍼런스 현장에서 오간 독일과 우리나라 청년들의 이야기를 다루었다.
- 100년 근 현대사 속 한국미술의 흐름을 보다
근현대사를 소재로 한 미술 전시회 3곳을 취재하고 각각의 작품들을 통해 작가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들을 소개했다.

【참고사항】

리포트 아이템 구성 기획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아이템 간의 연결성과 시의성을 담았으면 한다. 오늘 방송된 ‘통일을 이끈다...베를린 남북 평화의 식탁’ 행사는 지난 11월 12일 화요일에 방송된 “장벽 붕괴 30주년...베를린서 ‘한반도 평화’노래”의 연장선상 아이템이다. 베를린 장벽 붕괴가 11월 9일이라는 점을 고려했으면 좋겠다.

<글로벌 리포트>에서 ‘입과 귀로 통일로 이끈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었는데 ‘입과 귀로 통일을 이끈다’로 표기기 되어야 문맥상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겠다.

프로그램	KTV 사실은 이렇습니다		
방송일자	2019. 11. 28.	시청률	0.013

【총 평】

<KTV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탈원전으로 2030 전기료 30% 오른다’ 및 ‘500조 원전건설 버리고 20조 해체산업 육성?’ 등 정부의 탈원전 정책 유지 및 추진 기조에서 이를 부족한 근거로 비판하는 기사에 대한 팩트체크를 다루었다.

탈원전 정책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내용이었는데 시간의 제약으로 원전 정책의 큰 틀을 다루었다기 보다는 경제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이것이 득인가 실인가 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어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원자력 발전 폐지 혹은 축소 정책으로 건설 중인 원전은 계속 건설하되, 증설은 자제하고 장기적으로는 원자력발전 비중을 감소시키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증대시키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구성 및 내용】

‘탈원전으로 2030 전기료 30% 오른다’ 및 ‘500조 원전건설 버리고 20조 해체산업 육성?’ 등 정부의 탈원전 정책 유지 및 추진 기조를 비판하는 언론의 과도한 오보에 대해 김성욱 교수와 이정현 변호사가 출연하여 전기료 상승률에 대한 정부의 예측치와 에너지 연구원의 한 개인 연구원의 예측치 차이에 대한 연휴를 설명해주었다. 이어 원전건설과 원전해체산업 시장 규모에 대한 설명도 하며 오보에 대해 바로잡아주었다.

■ 오늘의 기사 & 댓글 욕신각신

탈원전 정책에 대한 논란을 차례로 소개하고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정리했다.

■ 팩트체크 1: 탈원전 정책으로 2030년 30% 상승

기사와 정부 발표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분석 모형에 대한 전문적인 설명을 더해 팩트체크에 대한 근거를 충분히 마련했으며 원전과 한전의 영업이익에 대한 영향력까지 두루 살펴봤다.

■ 팩트체크 2: 500조 원전건설 버리고 20조 해체산업 육성?

해체산업의 이익이 20조라고 언급된 것의 팩트를 체크하는데 집중했고 이를 위해 동일한 언론사에서 천차만별의 수치로 이를 설명한 기사를 공개하면서 가짜 뉴스의 실체를 밝혔다.

【참고사항】

<KTV 사실은 이렇습니다> 팩트체크가 2개니까 왼쪽 상단에 표기되는 제목도 두 개로 준비해서 중간에 한 번 바꿔주면 좋겠고, 주제가 탈원전인데 원전 혹은 관련 전문가가 아닌 변호사 게스트가 이번 주제와 적합한지 의문이었다.

프로그램	현장출동 안전이 먼저다		
방송일자	2019. 11. 28.	시청률	0.077

【총 평】

가을 개편과 함께 방송을 시작한 <현장출동 안전이 먼저다>는 KTV의 정체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음주운전, 산악사고, 지진, 해상사고에 이어 바다낚시에 이르기까지 각종 사고의 원인과 솔루션을 추적함으로써 캠페인 효과가 탁월하다.

이와 함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공무원 등의 노고를 부각시키고자 하는 기획의도도 충실히 살리고 있다.

이번 방송에서는 낚시인구 증가로 800만명 시대를 맞은데다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로 인명사고가 급증하는 겨울철을 맞아 낚시객들의 안전을 위한 내용이 다뤄져 안전의식 고취와 사고 감소를 이끄는 캠페인 기획이 돋보였다.

<위험을 낚는 바다 낚시>에서는 사례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당시 사고와 구조 영상을 생생하게 보여줘 메시지 전달력을 높였다. 사고원인이 구멍조끼 미착용 등 안전불감증이라는 점이 강조돼 사고 예방 캠페인 역할을 했다. 사고 발생시 행동요령과 주의사항을 상세히 알려줘 비상시 활용할 수 있게 한 점도 유익한 정보 제공 이었다.

【구성 및 내용】

오늘 방송은 도입부에 ‘안전 관련 시청자 관심을 잘 끄는’ 인터뷰들이 많아, 유인효과가 컸다. 방송초반 인터뷰이가 “낚시인구가 워낙 많아, 어린이들도 많이 출조한다”고 전해 안전 유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했고 ‘국민 취미 1위’라는 점, ‘겨울이 가장 위험하다는 점’, ‘해상 사고를 겪은 후의 트라우마가 심하다는 점’ 등도 초반 배치돼 시청 동기를 자극했다.

낚시어선, 레저보트, 고무 보트, 카약 사고 등 생업을 하는 낚시배 등의 사고보다는 ‘취미로 하는 해상레저’ 시 사고 발생 사례 위주로 묶어 전해 일반인에게 와 닿았다. 바다레저를 취미로 갖고 있는 이들에게 안전장비 확보, 규정인원 준수, 야간항해 시 반드시 불을 켜 줄 것, 날씨와 물 때 확인, 휴대전화는 방수팩에 꼭 넣어 가지고 있기’ 등 ‘세심하게 안전 주의사항을 챙겨준 시간이었다.

태안해양경찰서에서의 화면 제공 등으로 생생한 모습을 보여주고 메시지 전달력을 높였다.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안전의식을 고취시켰다.

긴급 출동해 위험에 처한 낚시객 구조에 나서는 해양경찰관을 추적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부각시킨 점도 의미가 컸다.

【참고사항】

태안 낚시어선 화재 발생 당시 ‘실제 음성’ 자료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저희 단정을 띄워서”라는 자막이 있었는데, ‘띄워서’가 옳은 표기겠다.